

# 공동요구 의견일치



## 지부 공동요구 의견일치

8월 17일(금)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13차 집단교섭을 진행, 사용자측 10개 사 20명, 노동조합 11개 사 44명이 참가했다.

휴가 전 중앙교섭이 의견일치된 후 휴가 후 2차례 집단교섭을 진행, 지부 공동요구에 노사가 의견접근했다.

부분근로자대표제와 장시간 노동 확대 등 정부의 노동개약 계획에 대응하는 통일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2023년 9,970원), 중대재해 대책 강화 등 중앙교섭 공동요구는 중앙교섭의 합의안을 담았다.

올해 지부 공동요구 2가지 중 노동안전교육은 사측이 원안을 수용했지만, 고용안정 요구에서 기존의 '협의'를 '합의'로 바꿔 전환기 고용불안에 대비하자는 데에는 부담을 표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차에서도 수정제시안이 나왔지만 사측 입장은 여전해, 조합은 "진전 없으면 마치자"는 의견을 냈다. 사측이 "매듭짓고 싶다. 축소교섭을 하자"는 요청을 해 2시간 가량 정회하고 축소교섭을 진행, 협약의 문구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일치에 이르렀다.

## 고용안정 합의 전환기에 의미

교섭을 마무리하며 이규선 지부장은 "전환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용문제에 오늘 합의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측 또한 고생했다며 격려했다. 각 사업장 별 임금교섭을 추가로 진행한 후 임금인상까지 마무리되면 조인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 마무리 속도↑ 미타결 사업장 주목

지부 공동요구 마무리 후 휴가 직전부터 집단교섭 사업장 별로 추가 진행 중이던 임금 교섭도 속도를 낸다. 말레동현화성, 우창정기지회 등은 턱없는 임금인상안에 파업을 예고했다. 대각선 사업장도 다수가 의견을 접근하며 교섭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단체협약 갱신이 있는 보그워너평택과 보그워너모빌리티 등 투쟁이 이어질 사업장에 휴가 후부터 힘을 보태고, 대창, 현대그린푸드 등 하반기 본격 투쟁에 돌입하는 사업장도 빠짐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목하고 힘 실을 계획이다.

현행	2023 갱신 의견일치
경기지부 관계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고용을 유지하고, 부득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휴인력이 발생할 경우,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하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경기지부 관계사용자(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총고용을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부득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휴인력이 발생할 경우 고용안정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하며 근로조건은 충분히 협의한다.



(사진 왼쪽) 말레동현화성지회가 8.17(목)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사진 오른쪽)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보그워너 출근선전전에 지부 집행위원과 인근 사업장 등이 함께 한다.